



# 열왕기와 역대기 평행본문의 칠십인경 본문 형태에 관한 연구

—열왕기상 8장 1-53절과 역대하 5장 2절-6장 42절을 중심으로—

김정훈(부산장신대)

## 1. 들어가는 말: 연구사와 문제제기

칠십인경 본문의 형태와 그 역사 연구는, 19세기 후반에 체리아니(A. Ceriani)와 벨하우젠(J. Wellhausen)과 필드(F. Field)가 제각각 몇몇 중세 필사본과 안디옥 교부들의 성경 인용문들 사이의 관계를 비교해서, 이른바 “루키안 본문”(나중에 “안디옥 본문”이라 일컬음) 형태를 확인한 이후로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sup>1)</sup> 특히 사무엘-열왕기서를

---

\* 이 논문은 2014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4S1A5A2A01015019).

1) A. Rahlfs, *Septuaginta-Studien III* (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1965<sup>2</sup>), 80, 각주 1), 또한 참조: J.-H. Kim, *Die hebräischen und griechischen Textformen der Samuel- und Königebücher. Studien zur Textgeschichte ausgehen von 2Sam 15,1-19,9* (Berlin u.a.: Walter de Gruyter, 2009), 8; J. Wellhausen, *Der Text der Bücher Samuelis* (Göttingen: Vandenhoeck

범위로 한 초기 헬레니즘 유대주의 시대의 본문 형태와 그 역사는 칠십인역 본문 역사와 관련한 연구의 쟁점이 되어 왔다.<sup>2)</sup> 곧이어 라가르드(P. A. de Lagarde)는 이른바 이 “루키안 본문”을 처음으로 편집하여 출간했다.<sup>3)</sup> 그리고 그의 제자인 랄프스(A. Rahlfs)는 그간 이 본문 형태의 기원자로 여겼던 안디옥 교부 순교자 루키안이 헤キサ플라 이전의(vorhexaplarisch) 이른바 “전(前)-루키안”(vorlukiianisch) 본문 형태를 개정했다고 주장했다.<sup>4)</sup>

그 이후 테커레이(H. St. J. Thackeray)는 번역기법의 측면에서 사무엘-열왕기 안에 존재하는 두 가지의 서로 다른 번역층을 구분해냈다(a-삼상; bb-삼하 1:1-11:1; gg-왕상 2:12-21:43<sup>5)</sup>; βγ-삼하 11:2-왕상 2:11; γδ-왕상 22:1-왕하 25:30).<sup>6)</sup> 그는 여기서 βγ-부분과 γδ-부분의 특징에 주목하였는데, 여기서는 직역을 지향하는 번역기법을 찾아볼 수 있다.<sup>7)</sup> 그래서 테커레이는 이 부분을 후대인 주후 2세기의 추가 번역으로 보았다. 하지만 이 연대구분은 그 이후 수정되었는데,

---

& Ruprecht, 1871), 221–224; F. Field, *Origenis Hexaplorum quae supersunt; sive veterum interpretum graecorum in totum vetus testamentum fragmenta* (Bd. 1; Oxford: 1867; nachdr. Hildesheim: Georg Olms Verlagsbuchhandlung, 1964), lxxviii–ix.

- 2) 연구사에 대해서는, J.-H. Kim, *Textformen*, 4–32를 참조하라; 비교, S. Kreuzer, “Der Antiochenische Text der Septuaginta. Forschungsgeschichte und eine neue Perspektive”, in: S. Kreuzer und M. Sigismund (ed.), *Der Antiochenische Text der Septuaginta in seiner Bezeugung und seiner Bedeutung* (DSI 4; 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2013), 23–56.
- 3) P. A. de Lagarde, *Librorum Veteris Testamenti canoniconum pars prior Graece* (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1883).
- 4) A. Rahlfs, *Septuaginta-Studien III*, 특히 176–186; 259–295를 보라.
- 5) 마소라 본문의 20:43. 칠십인경에서는 20장과 21장의 순서가 뒤바뀌어 있다.
- 6) H. St. J. Thackeray, “The Greek translators of the four books of Kings”, *JTS* 8 (1907), 262–266; 같은이, *The Septuagint and Jewish Worship. A Study in Origins* (London: The British Academy, 1921).
- 7) 잘 알려진 대로 이 부분들의 가장 중요한 특징들은 바르텔레미가(D. Barthélemy) “카이게 그룹”(groupe kaige)이라는 말로 일컬으면서 관찰한 다음의 보기들을 들 수 있다: כִּי־אֶת־אֱלֹהִים을 ἀναθηρῶ, כִּי־אֶת־אֱלֹהִים을 κρατήσω, כִּי־אֶת־אֱלֹהִים을 κληρώ, כִּי־אֶת־אֱלֹהִים을 κληρώ, כִּי־אֶת־אֱלֹהִים을 κληρώ로 일관되게 번역하는 등. 이 부분의 더 많은 특징들에 대해서는, Thackeray, *The Septuagint and Jewish Worship*, 114–115; D. Barthélemy, *Les Devanciers d'Aquila* (VTS 10; Leiden: Brill, 1963), 48–80을 참조하라.

먼저 전-루키안 본문, 곧 안디옥 본문은 쿨란 본문이나 요세푸스의 『유대 고대사』와 배타적으로 일치하는 부분들을 바탕으로 주전 2세기까지 거슬러 올라가게 되었다.<sup>8)</sup> 또한 테커레이가 후대의 개정이라고 여겼던 본문형태는 바르텔레미가 마찬가지로 이 본문 형태와 일치하는 본문 증거(textual witnesses)를 바탕으로 주전 1세기로 거슬러 올랐다.<sup>9)</sup> 곧 주전 1세기의 것으로 추정되는 나할 헤베르(Nahal Hever)에서 발견된 헬라이어 열두 소예언서 두루마리(8HevXIIgr)에서  $\beta\gamma$ -부분과  $\gamma\delta$ -부분에서 찾아볼 수 있는 것과 동일한 직역 형태의 번역 본문이 확인된 것이다. 바르텔레미에 따르면, 이 일대일 직역의 개정, 이른바 카이게-개정본(Kaige-recension)은 주후 2세기 아퀼라(Aquila)의 극단적인 직역의 선행자(“les devanciers”)였을 것이다.

최근 들어 스페인에서는 일찍이 벨하우젠이 주장했던<sup>10)</sup> 안디옥 본문의 비평 편집본(critical edition)이 마침내 출간되었다.<sup>11)</sup> 스페인에서 출간된 안디옥 본문의 이 편집본을 바탕으로 사무엘-열왕기와 역대기 영역에서 본문 형태와 그 역사에 대한 연구는 좀 더 구체화될 수 있었다. 그 이후 안디옥 본문과 카이게 개정본의 본문 형태와 역사에 대한 연구는 크로이처(S. Kreuzer)와 그의 제자들을 중심으로 계속 이루어

8) F. M. Cross, “A new Qumran Biblical Fragment Related to the Original Hebrew Underlying the Setpuagint”, *BASOR* 132 (1953), 15–26; 같은이, “The Ammonite Oppression of the Tribes of Gad and Reuben: Missing verses from 1Sam 11 Found in 4Samuel”, in: E. Tov (ed.), *The Hebrew and Greek Texts of Samuel. 1980 Proceedings IOSCS* (Jerusalem: Academon, 1980), 105–119; E. Ulich, “4QSam<sup>a</sup>: A Fragmentary Manuscript of 2Samuel 14–15 from the Scribe of the Serek Hay-ya ad (1QS)”, *BASOR* 235 (1979), 1–25; 같은이, *The Qumran Text of Samuel and Josephus* (HSM 19; Missoula: Scholars Press, MT, 1978).

9) D. Barthélemy, *Les Devanciers d'Aquila*.

10) Wellhausen, *Der Text der B cher Samuelis*, 223.

11) N. Fernández Marcos und J. R. Busto Saiz, *El texto antioqueno de la Biblia griega I-III* (TECC 50, 53, 60; Madrid: Instituto de Filología C.S.I.C., 1989, 1992, 1996); 이와는 별도로 안디옥 본문을 포함하는 중세 필사본들을 가지고 편집한 다수 본문(majority text) 편집본인 B. A. Taylor, *The Lucian Manuscripts of 1 Reigns* Volume 1. Majority Text; Volume 2. Analysis (Atlanta: Scholars Press, 1992, 1993)도 참조하라.

졌다.<sup>12)</sup>

이런 배경에서 본 연구는, 사무엘-열왕기의 카이게 부분( $\beta\gamma$ -부분과  $\gamma\delta$ -부분)에서 찾아볼 수 있는 안디옥 본문과 카이게 개정본 사이의 번역 기법 차이점들<sup>13)</sup>이 칠십인경 전체에서 유일한 보기인지, 만약 그렇지 않다면 어떤 본문에서 그와 같은 현상을 찾아볼 수 있을지의 물음에서 시작하였다. 이 물음에 대한 답을 위해서 본 연구에서는 열왕기와 역대기의 평행본문에 주목하였다. 왜냐하면 두 평행본문은 기본적으로 같은 본문 전승을 바탕으로 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이다. 이런 경우 본문의 역사와 칠십인경에서 어떻게 번역되었는지 제각각의 특성을 살필 수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역대기의 칠십인경은 직역 지향의 경향을 내보인다는 사실이 이미 알려져 있어서<sup>14)</sup> 우리의 물음에 대한 적절한 검증 본문이 되기 때문이다. 특히 솔로몬의 성전 봉헌 기도와 연설을 보도하는 열왕기상 8장 1-53절과 역대하 5장 2절-6장 42절의 평행 본문을 보기로 선택하여 이를 중심으로 우리의 물음을 풀어나가려 한다. 본 연구에서는 동일한 대본(Vorlage)을 두고 서로 다르게 번역된 평행본문들을 우선적으로 다루어 분석하고자 한다.

- 
- 12) 크로이처의 제자 가운데 한 사람으로서 필자는 삼하 15:1-19:9의 본문을 중심으로 사무엘-열왕기의 본문 형태와 그 역사를 연구하였다. 이는 Kim, *Textformen*을 참조하라. 이 주제와 관련한 크로이처의 개별 연구결과물들은 최근 한데 모아 책으로 출간되었다: S. Kreuzer, *The Bible in Greek. Translation, Transmission, and Theology of the Septuagint* (Atlanta: SBL Press, 2015).
  - 13) 사무엘-열왕기에서 이 차이점들의 분류 목록은 Kim, *Textformen*, 384-394와 400을 보라. 두 본문 형태의 일반적인 구분점을 소개하자면, 비교적 번역어인 헬라어의 어법이나 가독성에 초점을 맞추는 원-칠십인경(Old-Greek)에 가까운 것으로 여겨지는 안디옥 본문과는 달리 카이게 개정본은 위의 각주 8)에서 보기로 든 것과 같이 기계적 직역의 경향을 짙게 내보인다.
  - 14) 이 현상은 칠십인경 독일어 번역 프로젝트의 본문 분석 결과에서도 드러났다. 참조: M. Karrer und W. Kraus (ed.), *Septuaginta Deutsch. Erläuterungen und Kommentare*. Bd. 1 (Stuttgart: Deutsche Bibelgesellschaft, 2011), 1044.

## 2. 헬라어 본문 형태와 그 특징 분석<sup>15)</sup>

### 1) 구약 성경 본문의 유동성과 다층성 반영

구약성경이 헬레니즘 초기 유대주의 시대에는 아직 고정되지 않았으며, 유동적이고 다층적이었다는 사실은 널리 알려져 있다.<sup>16)</sup> 그렇기 때문에 많은 경우에 제각각 서로 다른 본문 전통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차이점들을 찾아볼 수 있다. 열왕기와 역대기의 평행본문에서 이 유동성과 다층성은 히브리어 본문에서뿐 아니라, 히브리어 전통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헬라어 역본들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우리 본문 범위에서는 아래와 같은 다양한 본문 조합을 들 수 있다.

15) 이 단락 히브리어 본문의 기초적인 분석 자료는, 김정훈, “열왕기-역대기 평행본문의 개역개정판 번역에 대한 소고 -열왕기상 8:1-53//역대하5:2-6:42 평행본문을 보기로-”, 『성경원문연구』 35 (2014), 48-69를 참조하라. 또한 열왕기 안에서 찾아볼 수 있는 이형들에 대해서는, J. W. Wevers, “A Study in the Hebrew Variants in the Books of Kings”, *ZAW* 20 (1945/48), 43-76를 보라. 또한 본문 비교와 관련하여 열왕기와 역대기의 평행본문을 원문 차원에서 다룬 다음의 문헌들을 참조하라: P. Vannutelli, *Libri Synoptici Veteris Testamenti seu Librorum Regum et Chronicorum loci paralleli* (Rome: E Pontificio Instituto Biblico, 1931); A. Bendavid, *Parallels in the Bible* (heb.) (Jerusalem: Carta, 1965/2010); J. Kegler und M. Augustin, *Synopse zum Chronistischen Geschichtswerk* (BEATAJ 1; Frankfurt: Peter Lang, 1993). 이 문헌들 가운데 바누텔리(Vanutelli)의 문헌이 우리의 목적에 가장 유용하다. 바누텔리는 히브리어 본문은 물론, 칠십인경 본문과 그에 대한 필사본 비평가들을 제공하며, 요세푸스의 『유대 고대사』 본문은 물론 불가타 본문까지 제공하여 본문을 대조해 놓았다. 비록 바누텔리의 자료가 오래되기는 했어도 여전히 참조할 가치가 있다. 아쉽게도 우리나라에서 이 부분에 대한 연구는 미미하다. 이는 지난 한 세기 동안 구약학을 전공한 한국인 학자들의 박사학위 주제를 분석한 김상래, “한국인 구약학자의 박사학위 논문(1931년-2010년)에 나타난 학문적 경향에 대한 분석”, 『구약논단』 39 (2011), 179-206, 특히 199를 보아도 알 수 있다. 다만, 평행본문 관련 연구로는 소형근, “여호사밧의 사법 개혁”, 『구약논단』 40 (2011), 86-104와 같은 개별 주제 연구 등을 찾아볼 수 있을 뿐이다. 최근에는 두 평행본문 연구를 위한 기초자료인 본문대조집이 출간되었다: 황선우, 『사무엘 열왕기 평행본문 대조집』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2012); 같은이, 『역대기 평행본문 대조집』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2012).

16) 여기에 대해서는, S. Kreuzer, “Von der Vielfalt zur Einheitlichkeit Wie came es zur Vorherrschaft des Mesoreitischen Textes?”, in: A. Vonach et al. (eds.), *Horizonte biblischer Texte FS Josef M. Oesch zum 60. Geburtstag* (OBO 196; Fribourg/Göttingen: Academic Press Fribourg, 2003), 118-129; 또한 Kim, *Textformen*, 402-404를 참조하라.

(1) (왕상MT=대하MT) ≠ (왕상LXX=대하LXX)

가장 먼저 열왕기와 역대기의 헬라어 번역이 일치하고, 제각각 히브리어 본문이 일치하지만, 히브리어와 헬라어 본문이 다른 경우를 찾아 볼 수 있다. 이는 칠십인경이 마소라 본문과는 다른 히브리어 본문을 전제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왕상 8:36ab//대하 6:27ab의 마소라 본문은 “כי תורם את־הקרבן הטובה” (왜냐하면 당신께서는 그들에게 선한 길을 가르쳐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이다. 하지만 여기서 칠십인경은 “ὅτι δηλώσεις αυτοίς την ὁδὸν τὴν ἀγαθὴν” (왜냐하면 당신께서는 그들에게 선한 길을 알려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로 옮긴다. 이는 결코 마소라 본문과 동일한 대본에서 온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헬라어 동사 δηλώω (텔로오/알려주다)는 칠십인경에서 이 두 부분을 제외하고는 한 번도 히브리어 동사 יָרָא (아라/가르치다)의 번역어로 쓰이지 않으며, 대부분 יָדָא (아다/알다)의 대응어로 쓰이기 때문이다.<sup>17)</sup> 따라서 칠십인경의 대본은 “תורם”이 아니라 “תודעם”이다. 이 차이는 아마도 비슷한 자음 본문의 혼동이나 비슷한 발음에서 비롯한 이형일 것이다. 어쨌거나 이 경우에서 열왕기와 역대기 칠십인경 본문의 대본은 분명히 마소라 본문과 달랐을 것이다.

(2) (왕상MT=대하LXX) ≠ (대하MT=왕상LXX)

이것은 열왕기와 역대기의 히브리어와 헬라어 본문이 엇갈려 일치하는 경우다. 왕상 8:46//대하 6:36이 이 경우에 해당한다. 열왕기상 8장

17) E. Hatch, H. A. Redpath (eds.), *A Concordance to the Septuagint and the Other Greek Versions of the OT (including the Apocryphal Books)* (Oxford, 1897–1906; reprint, Grand Rapids: Baker Books, 1998), 295. 참조: 출 6:3; 33:12; 시 24[25]:14; 41[42]:8; 50[51]:6; 147:9[20]; 렘 16:21; 단(LXX) 2:23, 25, 26, 28, 29, 30; 7:16; 단(Th) 4:15.

46ba절에서 마소라 본문은 “וְשִׁבּוּם שְׁבִיחַם אֶל־אֶרֶץ הָאוֹיֵב” (그리고 그들[하나님의 백성]을 사로잡은 자들이 그들을 대적의 땅으로 사로잡아 갈 것입니다)로 읽는다. 열왕기의 칠십인경 해당 본문에는 “אֶל־אֶרֶץ הָאוֹיֵב” (엘-에레츠 하오예브/대적의 땅으로)에 대한 번역이 빠져있다: “καὶ αἰχμαλωτιοῦσιν αὐτοὺς αἱ αἰχμαλωτίζοντες” (그리고 그들을 사로잡은 이들이 그들을 사로잡아갈 것입니다).<sup>18)</sup> 흥미롭게도 열왕기의 마소라 본문에 해당하는 번역은 칠십인경 역대기 본문인 6:36ba에서 찾아볼 수 있다: “καὶ αἰχμαλωτεύουσιν οἱ αἰχμαλωτεῦόντες αὐτοὺς εἰς γῆν ἐχθρῶν”. 반대로 역대기의 마소라 본문은 열왕기상의 칠십인경 본문을 지지한다: “(-) שְׁבִיחַם שְׁבִיחַם”. 이 경우는 두 이형이 분명히 병행하여 존재하였으며, 제각각 헬라이어 역본이나 그 대본에 엇갈려 수용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sup>19)</sup>

### (3) (왕상MT=대하MT) = 왕상LXX 또는 대하LXX

이 조합은 열왕기와 역대기의 마소라 본문이 일치하면서 칠십인경의 두 번역 가운데 하나만 지지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럴 경우 마소라 본문의 지지를 받지 못하는 칠십인경 본문은 번역기법의 문제가 아닌 한 또 다른 본문 전통을 반영할 수 있다. 이 조합에는 왕상 8:32ab//대하 6:23ab가 든다. 두 평행본문의 마소라 본문은 “לָחַץ רַגְלֵי בְרֵאשִׁי” (그의 길을 그의 머리에 돌리시려고)인데, 여기서 명사 רַגְלֵי (데레크/길)는 문맥상 “사람의 행위”를 뜻한다. 이 마소라 본문은 열왕기의 칠십인경을 지지한다: “δοῦναι τὴν ὁδὸν αὐτοῦ εἰς κεφαλὴν αὐτοῦ”. 반면에 칠

18) 참조. τὴν γῆν τοῦ ἔχθρου Ac.. 이 두 필사본은 헤사플라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이 이형은 아마도 헤사플라의 개정으로 거슬러 올라갈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Kim, *Textformen*, 38을 참조하라.

19) 이와 비슷한 조합으로는, אֶרֶץ 왕상 8:43 ≠ אֶרֶץ 대상 6:33=καὶ σὺ 왕상 8:43LXX[om A]) ≠ καὶ 대상 6:33(BANghni; + σὺ boc<sub>2</sub>e<sub>2</sub> rel).

십인경 역대하 본문에서 이 낱말은 복수형으로 옮겨진다: “καὶ ἀποδοῦναι ὀδοὺς αὐτοῦ εἰς κεφαλὴν αὐτοῦ”. 이 번역에서 음영으로 표시한 부분은 마소라 본문의 “דרכו/그의 길”가 아니라 “דרכיו” (다르카브/그의 길들)를 전제한다. 그리하여 칠십인경 역대하 본문은 나머지 본문들과는 다른 본문 전통의 가능성을 보여준다.

#### (4) 왕상MT + 대하MT=LXX(왕상 또는 대하)

여기서는 칠십인경 본문 가운데 하나가 자신에게 전승된 서로 다른 본문 전통을 합쳐놓은 꼴을 말한다. 이와 비슷한 현상은 후대에 바티칸 사본(Codex Vaticanus; Cod. B)의 필사자에게서도 찾아볼 수 있다.<sup>20)</sup> 어쨌거나 왕상 8:28bβ//대하 6:19bβ에서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을 간구한다. 역대하의 마소라 본문이 가장 짧다: “לְפָנַי אֲשֶׁר עֲבַדְתָּ מִתְּחִלָּה” (당신의 종이 당신 앞에서 기도 드리는 것). 그런데 이 부분의 칠십인경 번역은 열왕기상의 마소라 본문을 따른다: “ἡς ὁ παῖς σου προσεύχεται ἐναντίον σου σήμερον” (오늘 당신의 종이 당신 앞에서 기도 드리는 것) = “לְפָנַי אֲשֶׁר עֲבַדְתָּ מִתְּחִלָּה הַיּוֹם”. 이렇게 보면 위에서 언급한 (2)의 범주와 비슷한 경우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칠십인경 열왕기는 그리 간단하지 않다: “ἡς ὁ δοῦλος σου προσεύχεται ἐνώπιόν σου πρὸς σέ σήμερον” (오늘 당신의 종이 당신 앞에서 당신께 기도 드리는 것). 여기서 쓰인 번역어 “πρὸς σε” (프로스 세/당신께)가 열왕기상의 마소라 본문에 없지만, 헬라어 어법의 문제로 들어간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우리는 “προσεύχεται πρὸς σε”라는 번역이 “לְפָנַי מִתְּחִלָּה”로 거슬러 올라간다고 본다. 왜냐하면 우리가 다루는 본문 범위

20) 이 문제에 대해서는, Kim, *Textformen*, 38, 410; 김정훈, “칠십인경 바티칸 사본(Cod. B) 필사자의 특징: 사무엘하의 본문을 중심으로”, 『구약논단』 34 (2009), 104–125를 참조하라.



에서 이런 번역을 왕상 8:48//대하 6:38에서만 벌써 두 번이나 찾아볼 수 있기 때문이다.

왕상 8:48		대하 6:38	
וּשְׁבוּ אֵלַי	καὶ ἐπιστρέψωσιν πρὸς σε	וּשְׁבוּ אֵלַי	καὶ ἐπιστρέψωσιν πρὸς σε
וְהִתְפַּלְלוּ אֵלַי	καὶ προσεύξονται πρὸς σε	(-) וְהִתְפַּלְלוּ	καὶ προσεύξονται (-)

그래서 칠십인경 열왕기상의 가장 긴 본문은 두 개의 친근한 표현을 합쳐놓은 꼴이다. 번역자는 여기서 아마도 본문의 결정을 둘 가운데 하나로 하지 않는 대신에, 두 전통을 합쳐버렸을 것이다. 이는 위에서 언급한 대로 후대에 바티칸 사본의 필사자도 그대로 답습한 것이다.

이렇게 볼 때, 다음의 세 본문 전통을 우리는 이 부분에서 추정할 수 있다: ①대하MT의 מְחַפְּלִים עִבְדֵיךָ אֲשֶׁר לְפָנֶיךָ; ②왕상MT와 대하LXX의 מְחַפְּלִים עִבְדֵיךָ אֲשֶׁר לְפָנֶיךָ אֲשֶׁר עִבְדֵיךָ מִיָּמֵינוּ; ③왕상MT에 전승되었을 또 다른 본문인 מְחַפְּלִים עִבְדֵיךָ אֲשֶׁר עִבְדֵיךָ מִיָּמֵינוּ אֲשֶׁר עִבְדֵיךָ מִיָּמֵינוּ אֲשֶׁר עִבְדֵיךָ מִיָּמֵינוּ.

## 2) 번역기법과 관련한 이형들

### (1) 번역어 선택의 차이

사무엘-열왕기서에서는 흥미롭게도 안디옥 본문과 카이게 개정본이 경쟁본이기라도 한 듯 낱말 선택이나 문법 형태를 달리하는 경우를 어

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sup>21)</sup> 이 현상은 우리가 다루는 열왕기와 역대기의 두 평행본문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곧 두 평행본문의 마소라 본문이 일치하는데도 칠십인경의 두 번역이 다른 경우들이다. 왕상 8:1-53// 대하 5:2-6:42의 평행본문을 낱말 단위로 대조하여 분석한 결과, 가장 많은 경우는 낱말 선택의 차이다.<sup>22)</sup> 하지만 접두사(prefix)의 차이<sup>23)</sup>나 문법 형태의 차이<sup>24)</sup>도 찾아볼 수 있다. 흥미로운 용례들이 많지만, 여기서는 그 가운데서 두 가지 현상을 특징적인 보기로 분석한다.

① 반전치사(Semipreposition)<sup>25)</sup> וְאֵלֵּי(리프네/앞에)의 번역

우리가 다루는 본문 범위에서 반전치사 וְאֵלֵּי(리프네)는 9회 나오며, 그에 대한 칠십인경의 번역은 다음과 같다.

- 
- 21) 구체적으로는 Kim, *Textformen*, 384-394를 보라.
  - 22) τὰ ἡγιασμένα//οἱ ἀναφορεῖς (עֲרֵבָה; 왕상 8:8//대하 5:9); ὀπτάνοντο//evble,ponto (אָרַי; 왕상 8:8//대하 5:9); ἐν τῷ ἐκπορεύεσθαι αὐτοῦς//ἐν τῷ ἐξελεῖν αὐτοῦς (עֲרֵבָה; 왕상 8:9//대하 5:10); ἐκ τῶν πλεурῶν σου//ὄς ἐξελεύσεται (עֲרֵבָה; 왕상 8:19//대하 6:9); καὶ ἀνέστην//καὶ ἐγενήθη (עֲרֵבָה; 왕상 8:20//대하 6:10); ἐνώπιον//ἐναντι (עֲרֵבָה; 왕상 8:22//대하 6:12); ὡς σὺ//ὅμοιος σοι (עֲרֵבָה; 왕상 8:23//대하 6:14); ἐξαρθήσεται//ἐκλείψ (עֲרֵבָה; 왕상 8:25//대하 6:16); πλὴν καὶ//καὶ τίς (עֲרֵבָה; 왕상 8:27//대하 6:18); τῆς τέρψεως//τῆς δεήσεως (עֲרֵבָה; 왕상 8:28//대하 6:19); ἐξαγορεύση//ἀράσῃται (עֲרֵבָה; 왕상 8:31//대하 6:22); καὶ ἐξομολογήσονται//καὶ αἰνήσουσιν (עֲרֵבָה; 왕상 8:35//대하 6:26); καὶ ἐπάξεις//καὶ πατάξεις (עֲרֵבָה; 왕상 8:46//대하 6:36); καὶ ἦξουσιν//καὶ ἔλθουσιν (עֲרֵבָה; 왕상 8:42//대하 6:32).
  - 23) καὶ ἐνβλέποντο//καὶ ἐβλέποντο (אָרַי; 왕상 8:8//대하 5:9); καὶ ἀπέστρεψεν//καὶ ἐπέστρεψεν (עֲרֵבָה; 왕상 8:14//대하 6:3); εἰστήκει//παριστήκει (עֲרֵבָה; 왕상 8:14//대하 6:3); ἐξήγαγον//ἀνήγαγον (עֲרֵבָה; 왕상 8:16//대하 6:5); καὶ ἀνέστη(om ἄν- Ant)//καὶ ἔστη (עֲרֵבָה; 왕상 8:22//대하 6:12); ἀκούειν//ἐπακοῦσαι (עֲרֵבָה; 왕상 8:28//대하 6:19); τοῦ εἰσακοῦειν//τοῦ ἀκοῦσαι (עֲרֵבָה; 왕상 8:29//대하 6:20); δοῦναι//ἀποδοῦναι (עֲרֵבָה; 왕상 8:32//대하 6:23); καὶ εἰσακούση//καὶ ἀκούση (עֲרֵבָה; 왕상 8:49//대하 6:39).
  - 24) ὡς ἐξῆλθον//ἐν τῷ ἐξελεῖν (עֲרֵבָה; 왕상 8:10//대하 5:11); ὁ ἐξελεθῶν//ὄς ἐξελεύσεται (עֲרֵבָה; 왕상 8:19//대하 6:9); ἐπὶ τοῦ θρόνου//ἐπὶ τὸν θρόνον (עֲרֵבָה; 왕상 8:20//대하 6:10); ἀκούειν//ἐπακοῦσαι (עֲרֵבָה; 왕상 8:28//대하 6:19); τοῦ εἰσακοῦειν//τοῦ ἀκοῦσαι (עֲרֵבָה; 왕상 8:29//대하 6:20); εἰσακούσειν//εἰσακούση (עֲרֵבָה; 왕상 8:32//대하 6:23); πορεύσεται ἐν αὐτῇ//ἐν ἣ πορεύονται ἐν αὐτῇ (עֲרֵבָה; 왕상 8:36//대하 6:27); ὅτι ἐξελεύσεται//ἐάν δὲ ἐξέλθῃ (עֲרֵבָה; 왕상 8:44//대하 6:34); ὅτι οὐκ ἔστιν//ὅτι οὐκ ἔστι (עֲרֵבָה; 왕상 8:46//대하 6:36).
  - 25) 솔라모에 따르면, 반전치사란 히브리어 비분리전치사와 명사가 합쳐져서 전치사의 기능을 하는 경우(עֲרֵבָה, עֲרֵבָה, עֲרֵבָה 등)를 말한다. 참조. R. Sollamo, *Renderings of Hebrew Semiprepositions in the Septuagint* (Helsinki: Suomalainen Tiedeakatemia, 1979), 1.

열왕기상		역대하	
8:5	ἔμπροσθεν	5:6	ἔμπροσθεν
8:22	κατὰ πρόσωπον	6:12	κατέναντι
8:23	ἐνώπιον	6:14	ἐναντίον
8:25	ἐνώπιον	6:16	ἐναντίον
8:28	ἐνώπιον	6:19	ἐναντίον
8:31	κατὰ πρόσωπον	6:22	κατέναντι
8:33 <sup>1</sup>	ἐνώπιον	6:24 <sup>1</sup>	κατέναντι
8:33 <sup>2</sup>	(-)	6:24 <sup>2</sup>	ἐναντίον
8:46	ἐνώπιον	6:36	κατὰ πρόσωπον

이 제한된 범위의 용례 분석에서는 두 가지 현상을 찾아볼 수 있다. 첫째, 두 평행본문의 번역은 일관되지도 않고 통일되지도 않으며, 서로 다르다. 왕상 8:5//대하 5:6에서 한 번만 서로 번역이 일치한다. 둘째로, 칠십인경 열왕기상은 ἐνώπιον(에노피온)을 선호하는 반면에, 역대기의 칠십인경은 ἐναντίον(에난티온)을 선호한다. 물론 이 현상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책 전체의 용례를 살펴보아야 한다.

반전치사와 관련해서 솔라모(R. Sollamo)는 통계자료 중심의 연구를 한 바 있는데, 이 연구에서 ἔμπροσθεν(리프네)의 칠십인경 번역에 대한 통계자료도 제공해 준다.<sup>26)</sup> 솔라모의 통계에 따르면, 우리 본문 범위에서 관찰한 현상이 열왕기와 역대기 전체에서도 뒷받침됨을 알 수 있다. 곧 칠십인경 열왕기상에서 ἔμπροσθεν(리프네)는 53회 용례 가운데 35회(66.0%)가 ἐνώπιον(에노피온)으로 번역된다. 한편, 역대하의 칠십인

26) Sollamo, *Renderings*, 13-80.

경에서는 69회의 용례 가운데 27회(39.1%)가 ἐναντίου(에난티온)으로 옮겨진다. 그런데 여기서 ἐναντίου(에난티온)과 연관된 번역어들인 ἔναντι(에난티, 1회), ἀπέναντι(아프에난티, 2회), κατέναντι(카트에난티, 3회)를 포함하면,<sup>27)</sup> 역대하에서 이 빈도는 대략 47.8%에 이른다.

하지만 솔라모의 분석에서는 열왕기와 역대기 평행본문의 관계를 고려하지 않았다. 따라서 우리는 솔라모와는 다른 관점에서 분석을 진행해 보기로 한다. 우리의 본문 범위 분석을 통해서 분명해지는 사실은, 역대하의 칠십인경 번역자는 ἐναντίου(에난티온)을 רִפְּנֵי(리프네)의 번역어로 선호했다는 점이다. 이 현상을 번역자의 번역기법으로 확증하기 위해서 우리는 용례를 열왕기 평행본문이 있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두 부류로 구분해 본다. 우선 69회의 용례 가운데 43회가 열왕기의 평행본문이 없는 경우다. 이 가운데서 20회(46.5%)는 ἐναντίου(에난티온, 14회), ἔναντι(에난티, 4회), ἀπέναντι(아프에난티, 1회), κατέναντι(카트에난티, 1회)로 옮겨진다.<sup>28)</sup> 나머지 번역어들은 제각각 그 용례가 많지 않다.<sup>29)</sup> 따라서 이 번역을 원래 역대하 번역자가 선호했던 것으로 여길 수 있을 것이다.

그 다음으로 제각각 열왕기의 평행본문이 있는 경우들을 보자. 이런 경우는 26회를 찾아볼 수 있다. 이 용례들 가운데서 두 역본이 모두 열왕기의 선호 번역어인 ἐνώπιον(에노피온)으로 옮겨지는 것은 왕상 22:21//대하 18:20에서 한 번 뿐이다.<sup>30)</sup> 나머지 경우에는 두 평행본문의 번역이 달라서, 번역자의 의도성을 추측하게 해 준다. 우리 본문

27) 헬라어에서 이 번역어들의 연관성에 대해서는, Sollamo, *Renderings*, 21-29를 보라.

28) evnanti,on: 13:15; 14:11.. 12; 20:9; 25:8; 26:19; 28:14; 29:11, 19, 23; 30:9(rell. 비교. ἀντί B); 31:20; 34:24, 27; ἔναντι: 1:5; 20:13, 18; 27:6; ἀπέναντι: 2:3[4]; κατέναντι: 2:5[6].

29) (-):14,4[5]. 6[7]; 20:12; ἐνώπιον: 1:6, 10; 18:20; ἔμπροσθεν: 3:15; 9:11; 13:13; 15:8; 20:21; πρὸ προσώπου: 19:11; κατὰ πρόσωπον: 13:7, 8; 20:5; 34:4; εἰς ἀπάντησιν: 15:2; 20:17, 28:9; εἰς συνάντησιν: 14:9[10]; πρὸς: 24:14; πρὸ: 33:19; ἕσω εἰς: 29:16.

30) 참조. 자주 쓰이지 않는 번역어를 함께 쓰는 경우는 κατὰ πρόσωπον (왕상 7:49[35]//대하 4:20); ἔμπροσθεν (왕상 8:5//대하 5:6)이 있다.

범위의 현상처럼 열왕기에서 ἐνώπιον(에노피온)으로 옮기고, 역대기에서는 그 자리에 ἐναντίον(에난티온)이 있는 경우가 가장 많다.<sup>31)</sup> 나머지는 차이는 소수의 개별적인 용례들이다.<sup>32)</sup>

이 분석을 통해서 우리는 열왕기의 번역자는 ἐνώπιον(에노피온)을 רִפְנֵה(리프네)의 번역어로 선호하였고, 역대하의 번역자는 열왕기의 “경쟁본”으로서 자신의 번역에서 의도적으로 달리하려했을 것이라고 잠정 결론을 내릴 수 있겠다.<sup>33)</sup>

## ② 명사 רִפְנֵה(에베드/중)의 번역

우리의 본문 범위인 솔로몬의 성전 연설과 기도에서 רִפְנֵה(에베드/중)는 하나님 앞에서 솔로몬이 자기를 낮추는 표현으로 11회 등장한다. 이 표현을 칠십인경의 두 평행본문은 다음과 같이 옮긴다.

열왕기상		역대하	
8:23	δοῦλος	6:14	παῖς
8:24	δοῦλος	6:15	παῖς
8:25	δοῦλος	6:16	παῖς
8:26	(-)	6:17	παῖς
8:28	(-)	6:19	παῖς
8:28	δοῦλος	6:19	(-)
8:29	δοῦλος	6:20	παῖς

31) 왕상 8:23, 25, 28, 33, 46//대하 6:14, 16, 19, 24, 36; 왕상 8:62//대하 7:4; 왕상 9:1, 6//대하 7:17, 19; 왕상 9:25//대하 8:12; 왕상 12:6//대하 10:6; 왕상 22:10//대하 18:9; 왕하 18:22//대하 32:12; 왕하 22:10//대하 34:18; 왕하 22:19<sup>2</sup>//대하 34:27<sup>2</sup>; 왕하 23:3//대하 34:31.

32) κατὰ πρόσωπον//κατέναντι (왕상 8:22, 31//대하 6:12, 22); (-)//ἐναντίον (왕상 8:33//대하 6:24); κατὰ πρόσωπον//(-) (왕상 8:64//대하 7:7); ἐνώπιον//(-) (왕상 10:8//대하 9:7); πρὸ προσώπου//ἐναντίον (왕상 12:8//대하 10:8); ἀπὸ προσώπου//κατὰ πρόσωπον (왕하 14:12//대하 25:22); κατὰ πρόσωπον//ἐναντίον (왕하 11:18//대하 23:17).

33) 사무엘-열왕기에서 이 반전치사가 경쟁본의 도구로 쓰인 현상에 대해서는, Kim, *Textformen*, 75-80을 보라.

8:30	δοῦλος	6:21	παῖς
8:32	λαός	6:23	δοῦλος
8:36	δοῦλος	6:27	παῖς
시 132:10	δοῦλος	6:42	δοῦλος

이 용례들만 놓고 보자면, 두 가지 현상을 찾아볼 수 있다. 먼저, 두 번의 예외를 제외하면,<sup>34)</sup> 두 평행본문의 번역은 서로 다르다. 둘째로, 두 평행본문이 선호하는 번역어를 분명히 알아볼 수 있다. 곧 열왕기상은 *δοῦλος*(둘로스)를, 역대하는 *παῖς*(파이스)를 선호한다. 그러나 제한된 범위의 이 용례들을 일반적인 특징으로 확정할 수는 없다. 사무엘-열왕기서 칠십인경 전통의 *𐤀𐤃𐤁*(에베드/중) 번역에 대한 고찰에 따르면,<sup>35)</sup> 원-칠십인경(Ur-Septuaginta)은 *δοῦλος*(둘로스)를 “노예” 신분의 의미 외에도, 직접화법에서 1인칭 주어가 자신을 일컫는 “겸양의 자기표현”(demütig-höfliche Selbstbezeichnung), 또는 “하나님의 종”의 의미로 사용하며, *παῖς*(파이스)는 상위 계급에 있는 사람에게 대한 소속성(Zugehörigkeit)을 표현하는 데 썼다. 하지만 카이게-개정본은 이 두 번역어를 화법에 대한 고려 없이 계층 구분, 곧 *δοῦλος*(둘로스)는 “노예”를, *παῖς*(파이스)는 “신하”를 뜻하는 것으로 기계적으로 구분한다.

먼저 열왕기상의 용례를 전반적으로 살펴보자. 열왕기서의 카이게-부분( $\beta\gamma$ -부분과  $\gamma\delta$ -부분)을 제외하면,<sup>36)</sup> *𐤀𐤃𐤁*(에베드/중)는 54회 등장

34) 예외적 용례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왕상 8:32의 번역(*λαός*)은 아마도 의역일 것이다. 이 구절은 하나님의 심판을 말한다. 곧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사람들의 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을 심판하신다는 것이다. 열왕기상의 번역자는 여기서 쓰인 *𐤀𐤃𐤁*(에베드/중)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파악하였다. 이렇게 보면 역대하의 번역은 후대의 개정으로 여길 수 있다. 대하 6:41-42는 시 132:10-11의 본문과 동일하다. 아마도 역대하의 번역은 번역기법을 적용하지 못한 채 시편의 영향을 받았을 것이다.

35) 참조. J.-H. Kim, “Die Wiedergabe von *𐤀𐤃𐤁* mit *δοῦλος* und *παῖς* in der Septuaginta der Samuel- und Königebücher”, in: W. Kraus/M. Karrer/M. Meiser (Hg.), *Die Septuaginta- Texte, Theologien, Einflüsse* (WUNT 252; Tübingen: Mohr Siebeck, 2010), 391-403.

36) 이 부분의 특징에 대해서는 Kim, “*δοῦλος* und *παῖς* in der Septuaginta”, 399-402을 참조하라.

한다. 본문비평이나 번역기법의 문제인 경우를 제외하면,<sup>37)</sup> δούλος(둘로스)와 παῖς(파이스)가 표준 번역어로 사용되었다. 그 가운데서도 δούλος(둘로스; 36회; 66.6%)가 선호되는 번역어로 쓰였다.<sup>38)</sup> 하지만 παῖς(파이스)도 13회(24.1%)로 적지 않게 쓰였다.<sup>39)</sup> 이 용례들의 문맥을 살펴보면, 제각각은 상위 계급에 소속된 사람을 뜻함을 알 수 있다. δούλος(둘로스)도 이런 의미로 쓰이기는 하지만, παῖς(파이스)는 한 번도 “겸양의 자기표현”이나 “하나님의 종”이라는 뜻으로는 쓰이지 않는다. 이 의미는 오로지 δούλος(둘로스)로만 표현한다.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은, 열왕기상의 번역자는 δούλος(둘로스)의 의미영역을 παῖς(파이스)보다 더 넓게 이해하였으며, 열왕기상의 번역자는 여기서 전반적으로 δούλος(둘로스)를 더 선호하면서도 두 번역어에 대해 다소 느슨한 원칙을 가지고 있었다는 점이다.

이제 역대하의 경우를 살펴보자. 역대하에서 עֶבֶד(에베드/종)은 모두 42회 나온다. 이 가운데서 대다수를 차지하는 36회(85.7%)가 παῖς(파이스)로 번역되었다.<sup>40)</sup> 그 밖의 용례들은 모두 예외적인 경우들이다. 곧 번역기법의 문제인 경우를 제외하면,<sup>41)</sup> 역대하에서 δούλος(둘로스)는 네 번밖에 쓰이지 않으며(2:7[8]<sup>1</sup>; 6:23; 28:10; 36:20), 이 경우 열왕기에 평행본문이 없다. 그러니 역대하의 칠십인경은 분명히 παῖς(파이스)를 עֶבֶד(에베드/종)에 대한 표준 번역어로 사용하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더불어 역대하의 칠십인경은 의미론에 따른 구분이나 고려 없이 일관된 번역어를 선택하려는 후대의 번역기법을 보여준다.

37) 왕상 8:26, 28<sup>1</sup>, 32; 9:22; 16,9.

38) 왕상 3:6, 7, 8, 9; 5:20[6](x2), 23[9]; 8:23, 24, 25, 26, 282, 29, 36, 52, 56, 59, 66; 9:22; 11:11, 13, 26, 32, 34, 36, 38; 12:7(x2); 15:29; 18:9; 18:12, 36; 20(21):9, 32, 39, 40.

39) 왕상 3:15; 9:27, 28; 10:5, 8, 13; 11:17; 15:18; 20(21):6(x2), 12, 23, 31.

40) 대하 1:3; 2:7[8](x2), 9[10], 14[15]; 6:14, 15, 16, 17, 19(x2), 20, 21, 27, 42; 8:9, 18(x3); 9:4, 7, 10(x2), 21; 10:7; 12:8; 13:6; 24:9, 25; 25:3; 32:9, 16; 33:24; 34:16, 20; 35:23,24.

41) 대하 24:6 ὑπο Μωυση ἀνθρώπου τοῦ θεοῦ(יהוה עֶבֶד מֹשֶׁה).

여기서 우리는 열왕기상과 역대하의 평행본문도 전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한다. 역대하의 범위에서 평행본문 가운데  $\pi\alpha\iota\varsigma$ (에베드/중)가 나오는 경우는 24회이다. 이 가운데 4회는 서로 다른 번역기법에서 비롯된 이형이다.<sup>42)</sup> 열왕기상의 본문에서  $\delta\omicron\upsilon\lambda\omicron\varsigma$ (둘로스)가 나오는 경우에 역대하는 항상  $\pi\alpha\iota\varsigma$ (파이스)로 옮긴다.<sup>43)</sup> 반면에 열왕기에  $\pi\alpha\iota\varsigma$ (파이스)로 번역된 경우에는, 역대하에 해당 본문의 번역이 없는 한 번의 예외(왕상 10:13//대하 9:22)를 빼면 역대하와 모두 일치한다.<sup>44)</sup> 이로써 역대하의 번역자는 열왕기상의 다소 느슨한 번역 원칙을 일관된 번역 어인  $\pi\alpha\iota\varsigma$ (파이스)로 개정하였을 것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어쨌거나 이 현상은 카이게-개정본이 원-칠십인경을 일관된 직역으로 개정 한 것과 비슷하며, 역대기의 번역자가 열왕기와 의도적으로 다른 “경쟁본”을 만들려는 의도가 있었음을 추측할 수 있다.

## (2) 헬라이어 정관사의 용법 차이

왕상 8:1-53//대하 5:2-6:42의 본문 범위를 분석해 본 결과 칠십인경 열왕기상의 본문은 원어의 직역이 아니라 다소 자유로운 번역을 지향함을 알 수 있다. 반면에 칠십인경 역대하의 본문은 전반적으로 히브리어 대본에 충실한 번역, 곧 어느 정도 히브리어화한 번역을 보여준다.<sup>45)</sup>

여러 특징들을 들 수 있겠지만, 여기서는 헬라이어 정관사의 용법 차이

42) (-)// $\pi\alpha\iota\varsigma$  (왕상 8:26//대하 6:17); (-)// $\pi\alpha\iota\varsigma$  (왕상 8:28//대하 6:19);  $\lambda\acute{\alpha}\omicron\varsigma$ // $\delta\omicron\upsilon\lambda\omicron\varsigma$  (왕상 8:32//대하 6:23);  $\pi\rho\acute{\alpha}\gamma\mu\alpha$ // $\pi\alpha\iota\varsigma$  (왕상 9:22[10,22c]//대하 8,9).

43) 왕상 5:20[6]//대하 2:7[8](x2); 왕상 8:23, 24, 25, 28<sup>2</sup>, 29, 30, 36//대하 6:14, 15, 16, 17, 19(x2), 20, 21, 27; 왕상 12:7//대하 10:7; 왕상 12:21//대하 24:25; 왕상 14:5//대하 25:3; 왕하 22:12//대하 34:20.

44) 왕상 9:27, 28//대하 8:18<sup>1</sup>, 18<sup>2</sup>; 왕상 10:5, 8//대하 9:4, 7; 왕하 21:23//대하 33:24; 왕하 23:30//대하 35:24.

45) 위의 각주 14)를 참조하라.



로 두 평행본문의 차이점을 고찰해 보기로 한다. 칠십인경에서 헬라어 정관사는 주로 세 가지 경우에 사용된다. ① 히브리어 본문에 정관사가 있는 경우; ② 히브리어 본문에서 목적격 표지(nota accusativi)가 사용된 경우; ③ 대본에서 히브리어 전치사가 부정사 연계형(infinitivus constructus)과 더불어 사용된 경우. 사무엘-열왕기에서는 헬라어 정관사의 용법이 카이게-개정본의 중요한 표지 가운데 하나로 밝혀졌다.<sup>46)</sup> 여기서는 우리가 다루는 본문 범위에서 헬라어 정관사가 평행본문에서 제각각 어떻게 쓰이는지를 살펴보기로 한다.

히브리어에서는 연계상태의 명사(nomen regens)가 절대상태의 명사(nomen rectum)나 인칭대명접미어로 한정되어 있을 때, 그 명사에는 절대로 정관사를 쓸 수 없다. 반면에 헬라어 문법에서 이런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해당 명사 앞에 정관사를 쓴다. 이 원칙 때문에 칠십인경에서는 헬라어 문법에 충실한 번역과 히브리어화한 번역 사이의 차이가 생겨난다. 곧 헬라어 문법에 충실하려는 번역은 히브리어에 정관사가 없더라도 헬라어 정관사를 쓰는 반면에, 직역을 지향하는 번역은 헬라어 문법이 어색하더라도 히브리어 대본에 정관사가 없으면 번역문에서도 정관사를 쓰지 않는다. 우리의 본문 범위에서 이런 경우는 다음의 표와 같이 정리해 볼 수 있다.

열왕기상			역대하	
8:15	בְּפִי	ἐν τῷ στόματι αὐτοῦ	64	ἐν (-) στόματι αυχτοῦ
8:15	וּבְיָדָיו	καὶ ἐν ταῖς χερσίν αὐτοῦ	64	καὶ ἐν (-) χερσίν αὐτοῦ
8:18	אֶל־דָּוִד אָבִי	πρὸς Δαυιδ τὸν πατέρα μου	68	πρὸς Δαυιδ (-) πατέρα μου

46) 이에 대해서는, Kim, *Textformen*, 97-98; 같은이, 『칠십인역 입문』, 140-141; Kreuzer, *The Bible in Greek*, 113-174를 참조하라.

8:18	עִם־לְבָבְךָ	ἐπὶ τὴν καρδιά σου	6:8	ἐπὶ (-) καρδιά σου
8:23	בְּכָל־לֵבָבְךָ	ἐν ὅλῃ τῇ καρδίᾳ αὐτοῦ	6:14	ἐν ὅλῃ (-) καρδίᾳ (+ αὐτῶν be <sub>2</sub> )
8:30	עִמָּךְ	καὶ τοῦ λαοῦ σου	6:21	καὶ (-) λαοῦ σου
8:32	יָרַכְוּ / יָרַכְוּ [?]	τὴν ὁδὸν αὐτοῦ	6:23	(-) ὁδοὺς αὐτοῦ
8:34	עִמָּךְ	τοῦ λαοῦ σου	6:25	(-) λαοῦ σου

위의 용례들은 모두 인칭 대명접미어가 명사를 한정하고 있기 때문에 히브리어 본문에는 정관사가 없다. 이 본문들은 역대하 칠십인경에서 글자 그대로 정관사 없이 옮겨졌다. 반면에 열왕기상 칠십인경은 헬라어 문법의 이유로 정관사를 삽입했다.

이와는 반대로 칠십인경 역대하에는 정관사가 있고 칠십인경 열왕기상에는 정관사가 없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히브리어 본문에는 정관사나 전치사가 있다.

열왕기상			역대하	
8:17	בְּנִבְנֹת	(-) οἰκοδομήσαι	6:7	τοῦ οἰκοδομήσαι
8:23	הַבְּרִית וְהַחֶסֶד	(-) διαθήκην καὶ (-) ἔλεος	6:14	τὴν διαθήκην καὶ τὸ ἔλεος
8:30	מִן־שָׁמַיִם	ἐν (-) οὐρανῶ	6:21	ἐκ τοῦ οὐρανοῦ
8:43	לְיָרֶא	καὶ φοβῶνται	6:33	καὶ τοῦ φοβῶνται
8:43	לְדַע	καὶ γινῶσιν	6:33	καὶ τοῦ γινῶναι

왕상 8:17//대하 6:7과 왕상 8:43//대하 6:33은 같은 현상을 보여준다. 곧 부정사 연계형(infinitivus abstractus)과 함께 쓰인 전치사 ל(르)를 헬라어 정관사로 옮긴 것이다. 왕상 8:17//대하 6:7에서 두 평행본문의 히브리어 본문은 동일하다.

“וַיְהִי עִם-לִבְבֵךְ יְיָ אֱבִי לְבָנוֹת בֵּית לְשֵׁם יְהוָה”

(그리고 나의 아버지 다윗은 야훼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지으려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이 본문을 열왕기의 칠십인경은 다음과 같이 번역한다: “καὶ ἐγένετο ἐπὶ τῆς καρδίας Δαυιδ τοῦ πατρός μου οἰκοδομῆσαι οἶκον τῷ ὀνόματι κυρίου θεοῦ Ἰσραηλ”. 헬라어 구문론의 관점에서 볼 때, 부정사를 ἐγένετο(에게네토)와 함께 쓰는 것은 비인칭 용법(unpersönlicher Ausdruck)으로 이해할 수 있어서,<sup>47)</sup> 비록 히브리어 전치사 ל(르)를 반영하지는 않지만, 원어의 형태를 가능한 유지하면서도 번역어의 문법에서 합당한 번역으로 볼 수 있다. 반면에 역대하의 칠십인경은 원문에서 히브리어 부정사 연계형과 함께 쓰인 이 전치사를 일대일로 직역하기 위해 헬라어 정관사 속격(τοῦ)을 부정사 앞에 넣었다.<sup>48)</sup>

칠십인경 역대하 6장 33절은 앞선 용례와 동일한 문법적 표현을 마찬가지로 정관사와 부정사의 형태로 옮겼다. 그러나 칠십인경 열왕기 상 8장 43절에서는 또 다른 번역의 가능성을 내보인다. 곧 앞선 문장의 번역과 관련하여 접속법 단순과거(subjunctive aorist) 형태를 쓰는 것이다. 앞선 문장은 다음과 같다: “לְמַעַן יִדְעוּן כָּל-עַמֵּי הָאָרֶץ אֶת-שְׁמִיךָ” (온 백성들이 당신의 이름을 알도록); “ὅπως γινώσιν πάντες οἱ λαοὶ τὸ ὄνομά σου”. 이 문장과 이어지는 문장에서 히브리어 본문에는 동사가 세 번 두 가지 형태로 나온다. 곧 첫 동사는 위의 본문에서 보듯 (르마안/위하여)와 더불어 정형 활용을 하고(יָדְעוּן), 이어지는 나머지 두 동사는 전치사 ל(르)와 함께 부정사 연계형으로 쓰였다. 역대기에서는 이 형태를 형태 그대로 직역했다. 그러나 열왕기의 칠십인경에서는 히브리어 본문에서 다르게 활용한 세 동사를 헬라어 문법에 맞게 첫 용법에

47) 참조. F. Blass, A Debrunner (rev. F. Rehkopf), *Grammatik des neutestamentlichen Griechischen*, (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2001<sup>18</sup>, 이하 BDR), §393.

48) 이 용법에 대해서는 참조. BDR §400.

따라 수정했다.

왕상 8:23//대하 6:14; 왕상 8:30//대하 6:21은 또 다른 차원에서 살펴 봐야 한다. 이 두 경우에서 칠십인경 열왕기의 본문에는 역대기의 번역과 달리 히브리어 본문에 정관사가 있는데도 누락되어 있다. 먼저 칠십인경 열왕기상 8장 23절의 *διαθήκην καὶ ἔλεος*(디아테켄 카이 엘레오스/언약과 은혜)를 살펴보자. 열왕기의 번역자는 이 경우에 두 낱말을 서로 밀접하게 연관된 한 개념으로 여긴 듯하다. 왜냐하면 헬라어에서는 서로 연관된 명사들이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개념을 나타내거나 서로 연관된 관계에 있을 때 정관사를 생략할 수 있기 때문이다.<sup>49)</sup> 사무엘하의 칠십인경 번역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이 현상이 안디옥 본문과 카이게-개정본 사이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sup>50)</sup> 이런 뜻에서 열왕기상의 번역은 원-칠십인경을 반영하며, 역대하의 번역은 그 후대에 시작되었을 원어 지향적 직역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왕상 8:30//대하 6:20의 경우에서도 마찬가지다. 본문비평적 문체와 연관된 전치사의 차이는 두고서라도, 히브리어 본문과 칠십인경 역대하 번역은 정관사 사용의 관점에서 서로 일치한다. 반면에 칠십인경 열왕기의 번역에는 정관사가 없이 *ἐν οὐρανῷ*(엔 우라노/하늘에서)로 쓰였다. 헬라어 문법의 관점에서 이 경우의 정관사 누락도 설명할 수 있다. 헬라어에서 전치사와 명사가 결합해서 부사적으로 쓰일 경우 종종 정관사가 생략되기 때문이다.<sup>51)</sup>

헬라어 정관사의 용법과 관련해서 잠정적으로 내릴 수 있는 결론은, 칠십인경 열왕기의 번역이 역대기의 번역보다 오래되었으며, 역대기의 헬라어 번역은 글자 그대로 원문을 직역하려는 경향을 내보인다는 사

49) 이에 대해서는, R. Kühner, B. Gerth, *Ausführliche Grammatik der griechischen Sprache* (Hannover: Hahnsche Buchhandlung, 1890-1904; 이하 KG), §462 k).

50) 사무엘하의 보기는, Kim, *Textformen*, 112를 보라.

51) KG §462 f).

실이다.

### 3. 결론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우리는 다음과 같은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다.

(1) 두 평행본문의 히브리어와 헬라이어 본문은 실제로 하나의 본문 전통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러나 그 본문은 분명히 유동적이고 다층적인 국면에 맞닥뜨렸을 것이다. 바로 이 시기에 이 두 헬라이어 본문은 저마다 서로 다른 번역 전통으로 나뉘게 되었을 것이다. 본 논문에서 다루는 단락에서는 서로 다른 본문 전통들이 평행본문의 칠십인경 헬라이어 번역에서 다양한 조합으로 남아 있는데, 이는 분명히 두 책 사이에 존재했을 본문 전통의 유동성과 다층성을 반영할 것이다. 특히 열왕기상과 역대하의 칠십인경 번역은 평행본문의 분석을 통해볼 때 서로 “경쟁본”이라 부를 수 있을 만큼 어휘나 문법적 번역기법의 측면에서 서로 다른 선택을 한다.

(2) 히브리어 본문이 동일한 평행본문 여러 곳에서 칠십인경 헬라이어 번역이 서로 다른 경우를 찾아볼 수 있다. 놀랍게도 사무엘-열왕기에서 밝혀진 카이게 개정본과 안디옥 본문 사이의 관계와 유사한 경우를 찾아볼 수 있다. 사무엘-열왕기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유추해 볼 때, 역대하 칠십인경 번역자는 이미 열왕기상의 칠십인경 번역을 알고 있었으며, 열왕기상의 번역과는 달리 원어에 충실한 번역기법을 통해서 자신만의 고유한 번역을 만들어 냈을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역대기의 칠십인경 본문은 사무엘-열왕기의 그것처럼 복잡하지 않다. 이는 달리 말하자면, 개정층이 없다는 것이다. 그런데도 역대기는 원어에 충실한 경향을 내보인다. 이로써 우리는 본 연구를 통해서, 주전 1세기 무렵으로 추정하는 카이게 개정본은 여태껏 학자들이 생각하고

있던 것과는 달리 그제야 비로소 등장한 것이 아니라, 그 전에 번역되었을 역대기에서 이미 그 단초를 찾아볼 수 있으며, 초기 유대/헬레니즘 시대에 더 심화되었다고 우선적인 결론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이것은 향후 더 많은 본문을 통해 확증해나가야 할 과제이기도 하다.

#### 4. 참고문헌

- 김상래, “한국인 구약학자의 박사학위 논문(1931년-2010년)에 나타난 학문적 경향에 대한 분석”, 「구약논단」 39 (2011), 179-206
- 김정훈, 『칠십인역 입문』 (서울: 바오로딸, 2009).
- \_\_\_\_\_, “칠십인경 바티칸 사본(Cod. B) 필사자A의 특징: 사무엘하의 본문을 중심으로”, 「구약논단」 34 (2009), 104-125.
- \_\_\_\_\_, “8HevXIIgr 하박국 본문을 중심으로 본 헬라/초기 유대주의 시대 히브리어 자음 본문의 형태”, 「구약논단」 46 (2012), 123-150.
- \_\_\_\_\_, “열왕기-역대기 평행본문의 개역개정판 번역에 대한 소고 - 열왕기상 8:1-53//역대하5:2-6:42 평행본문을 보기로-” 「성경원문연구」 35 (2014), 48-69.
- 소형근, “여호사밧의 사법 개혁”, 「구약논단」 40 (2011), 86-104.
- 황선우, 『사무엘 열왕기 평행본문 대조집』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2012).
- \_\_\_\_\_, 『역대기 평행본문 대조집』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2012)
- Bendavid, A., *Parallels in the Bible* (Jerusalem: Carta, 1965/2010) (hebrew).
- Barth lemy, D., *Les Devanciers d'Aquila* (VTS 10; Leiden: Brill, 1963).
- Blass, F., A Debrunner (rev. F. Rehkopf), *Grammatik des neut-*

- estamentlichen Griechischen*, (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2001<sup>18</sup>).
- Fernández Marcos, N. und J. R. Busto Saiz, *El texto antioqueno de la Biblia griega I-III* (TECC 50, 53, 60; Madrid: Instituto de Filología C.S.I.C., 1989, 1992, 1996).
- Hatch, E., H. A. Redpath (eds.), *A Concordance to the Septuagint and the Other Greek Versions of the OT (including the Apocryphal Books)* (Oxford, 1897-1906; reprint, Grand Rapids: Baker Books, 1998<sup>2</sup>).
- Karrer, M., W. Kraus (eds.), *Septuaginta Deutsch. Erläuterungen und Kommentare* (Bd. 1; Stuttgart: Deutsche Bibelgesellschaft, 2011).
- Kegler, J. und M. Augustin, *Synopse zum Chronistischen Geschichtswerk* (BEATAJ 1; Frankfurt: Peter Lang, 1993).
- Kim, J.-H., *Die hebräischen und griechischen Textformen der Samuel- und Königebücher. Studien zur Textgeschichte ausgehen von 2Sam 15,1-19,9* (Berlin: Walter de Gruyter, 2009).
- \_\_\_\_\_, “Die Wiedergabe von עֲבָרָה mit δούλος und πᾶς in der Septuaginta der Samuel- und Königebücher”, in: W. Kraus, M. Karrer, M. Meiser (eds.), *Die Septuaginta-Texte, Theologien, Einflüsse* (WUNT 252; Tübingen: Mohr Siebeck, 2010), 391-403.
- \_\_\_\_\_, “Text und Übersetzung des griechischen Zephanjabuches”, in: S. Kreuzer/M. Meiser/M. Sigismund (eds.), *Die Septuaginta- Entstehung, Sprache, Geschichte* (WUNT 286; Tübingen: Mohr Siebeck, 2012), 155-166.

- \_\_\_\_\_, “Die hebräischen Textformen der hellenistisch-früh-jüdischen Zeit. Ausgehend vom Habakuk-Text der griechischen Zwölfprophetenrolle aus Nahal Hever (8H evXIIgr)”, in: J. M. Robker, F. Ueberschaer, T. Wagner (eds.), *Text-Textgeschichte-Textwirkung. FS zum 65. Geburtstag von Siegfried Kreuzer* (AOAT 419; Münster: Ugarit Verlag, 2014), 347-357.
- Kreuzer, S., “Von der Vielfalt zur Einheitlichkeit Wie came es zur Vorherrschaft des Mosoretischen Textes?”, in: A. Vonach et al. (eds.), *Horizonte biblischer Texte FS Josef M. Oesch zum 60. Geburtstag* (OBO 196; Fribourg/Göttingen: Academic Press Fribourg, 2003), 118-129.
- \_\_\_\_\_, *The Bible in Greek. Translation, Transsmision, and Theology of the Septuagint* (Atlanta: SBL Press, 2015).
- Kühner, R., B. Gerth, *Ausführliche Grammatik der griechischen Sprache* (Hannover: Hahnsche Buchhandlung, 1890-1904).
- Rahlfs, A., *Septuaginta-Studien III* (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1965<sup>2</sup>).
- Sollamo, R., *Renderings of Hebrew Semiprepositions in the Septuagint* (Helsinki: Suomalainen Tiedeakatemia, 1979).
- Thackeray, H. St. J., *The Septuagint and Jewish Worship. A Study in Origins* (London: The British Academy, 1921).
- Vannutelli, P., *Libri Synoptici Veteris Testamenti seu Librorum Regum et Chronicorum loci paralleli* (Rome: E Pontificio Instituto Biblico, 1931).
- Wellhausen, J., *Der Text der Bücher Samuelis* (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1871).



검색어

칠십인경

안디옥 본문

카이게 개정본

번역기법

열왕기와 역대기 평행본문

Betrachtungen zu den griechischen  
Textformen der Paralleltexte zwischen  
1Kön 8,1-53 und 2Chr 5,2-6,42

Kim, Jong-Hoon, Dr. Theol.

Associate Professor, Department of Theology

Busan Presbyterian University

Der vorliegende Beitrag wollte die in den Samuel- und Königebüchern erkennbaren Phänomene erweitert untersuchen. Dafür wurde die Paralleltexte zwischen 1Kön und 2Chr ausgewählt. Vom ersten Lesen her ist intuitiv zu erfassen, dass 2Chr noch treuer zur Vorlage als 1Kön ist. Diese Tatsache lässt die weitere Annahme stellen, nämlich ob analog zur Relation zwischen dem antiochenischen Text und der Kaije Rezension die der Ausgangssprache treue wortwörtliche Übersetzung später als die auf die Zielsprache gezielte freie Übersetzung sein könnte. In diesem Zusammenhang ist unsere Untersuchung wie folgt zusammenzufassen:

www.kci.go.kr

(1) Die beiden hebräischen und griechischen Texte gehen eigentlich auf eine Tradition zurück. Allerdings sahen sie sich bestimmt einer flexiblen und vielfältigen Phase des Alten Testaments gegenüber. In dieser Phase gingen sie auch wohl durcheinander in Bezug auf die einzelnen Texttraditionen. Dieses Phänomen ist in den verschiedenen Büchern des Alten Testament zu erkennen. In unserem Textbereich befindet es sich als die verschiedenen Kombinationen der unterschiedlichen Texttraditionen, was sicherlich die Flexibilität und Vielfältigkeit der Traditionen zwischen den beiden Büchern widerspiegeln.

(2) In vielen Fällen, wo die hebräischen Texte der beiden Bücher identisch sind, weichen die beiden griechischen Versionen voneinander ab. Dieses Phänomen ist nichts anderes als, was die Beziehung zwischen dem antiochenischen Text und der Kaige Rezension der Samuel- und Königebücher darstellt. Aufgrund unserer Untersuchung ist zu besagen, dass 2ChrLXX schon 1KönLXX kannte und mit einer gegenüber 1KönLXX abweichenden zur Ausgangssprache treuen Übersetzungstechnik seine eigene Wiedergabe herstellte.

Zum Schluss könnte bescheiden aber mit Plausibilität aussagen: Die auf die Ausgangssprache gezielte Übersetzungs- bzw. Bearbeitungstechnik wie die der Kaige Rezension ist nicht bloss die Tendenz des erst in der hellenistisch/frühjüdischen Zeit aufgetauchten Hermeneutikregels, sondern sie setzt einen noch älteren von Haus aus wortwörtlich wiedergegebenen Vorläufer voraus und wurde in jener Zeit bei der Bearbeitung der Septuaginta weiter angewandt, stark entwickelt und immer weiter polemisiert. Natürlich braucht unsere Betrachtung weitere Bestätigung der anderen Textbereiche. Sie wird

die nachfolgende Aufgabe des vorliegenden Beitrags.

[www.kci.go.kr](http://www.kci.go.kr)

## **Keywords**

Septuaginta

Antiochenischer Text

Kaige Rezension

Übersetzungstechnik

Paralleltexte zwischen 1Kön und 2Chr

- 투고일: 2016년 4월 16일
- 심사일: 2016년 4월 31일
- 게재 확정일: 2016년 5월 9일

[www.kci.go.kr](http://www.kci.go.kr)